

◇…뇌혈관의 병변으로 뇌기능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통틀어서 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이라고 한다. 뇌혈관질환은 대개급격하게 일어나서 운동마비와 의식장애등 심한 신경증상을 동반하는 수가 많아서 일반에서는 바람을 맞았다는 뜻으로 중풍(中風)이라고도 하고 뇌출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뇌출증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와 터져서 생기는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앞것은 다시 뇌혈관 자체가 오랜시간에 걸쳐 변하여 막히게 되는 뇌혈전(腦血栓)과 뇌혈관 자체는 큰변화가 없는데 뇌혈관 이외의 혈관으로부터 막모양의 전색이 흘러들어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뇌전색(腦栓塞)으로 나누고, 뒷것은 크게 뇌실질내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출혈(腦出血)과 지주막하강안으로

터지는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로 나눈다. 그런데 뇌혈전이나 뇌동맥경화는 특히 우리 몸안의 기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콜레스테롤양이 높거나…◇증성지방치가 높은 경우에 잘 그러한뇌…◇혈관장애가 생긴다. 콜레스테롤중에서도 저밀도지방단백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밀도지방단백콜레스테롤은 오히려…◇하여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리몸에는 그와같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물질이 많이 있고 또 저…◇밀도지방단백콜레스테롤을 수용해서 이를…◇적제하는 수용체도 있어서 뇌혈전증이나…◇뇌동맥경화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수용체의 발견은 바로 85…◇년도 노벨의학상을 받게된 업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다. 응급처치의 요점은 기도확보, 산소투여, 쇼크에 대한 대책, 뇌혈류장애를 악화시키는 두경부 위치의 시정, 갑염예방, 수혈, 수액, 항경련제 및 진정, 안정제투여, 혈압, 호흡관리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응급처치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 큰병원에서만 가능하므로 한시바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병원으로 옮길때에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발병초기에 입원시켜 정밀검사와 집중치료를 받도록 한다. 뇌출혈등에서 수시간내에 사망하는 수도



李尙馥

<서울의대>  
신경과학교수

그런데 이러한 몸안의 기름기 축적은 음식물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물성지방질이 좋지 않고, 식물성기름이나, 흰살생선등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안의 기름뿐만 아니라 담배, 비만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도 뇌혈전증을 촉진시키고 피임호르몬제, 당뇨병, 심장병등도 뇌색전증을 유발한다. 특히 심장병은 뇌색전증의 주원인이 되고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원인이 되고 있다. 뇌혈전증은 오랫동안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거나 뇌혈관전체에 광범위하게 뇌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뇌혈류의 원만한 유통을 방해하게 되어 뇌가 필요로하는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탈락되어 나타나게 된다.

한편 뇌출혈은 혈압이 높은 분에게 무리를 한다든가,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수가 많다. 그래서 뇌혈전증은 쉬고 있을 때나, 자고난뒤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뇌출혈은 한참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오는 수가 많다. 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등이 있을 때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험신호로 받아들여 뇌혈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 주의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하는 등 예방에 힘써야 한다. 일반적으로 뇌출증이 3주이내에 죽은듯이 좋

있고 증상이 심해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때는 의사의 왕진시켜 결정하도록 한다. 뇌출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은 청소년기때부터 뇌혈관장애를 일으

## 식사·운동·담배·음주 등 적절히 조절

일상생활에서 高血壓 등 事前 예방 필요

## 항혈소판 응집제 등 藥物복용效果

뇌출증의 증상(症狀)은 원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갑자기 반신불수나 의식소실등의 신경증상을 보이게 되고 진행속도도 비교적 빨라서 몇분, 몇시간 길어야 수일내에 완성되는 수가 많다. 뇌전색이나 지주막하 출혈은 그중에서도 제일 빠르고 뇌출혈이 그다음, 뇌혈전은 흔히 수일간에 걸쳐서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다. 뇌혈전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몇차례 갑작스런 증상발작이 보이다가 하루안에 감쪽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과성뇌출혈(一過性腦虛血發作)이라고 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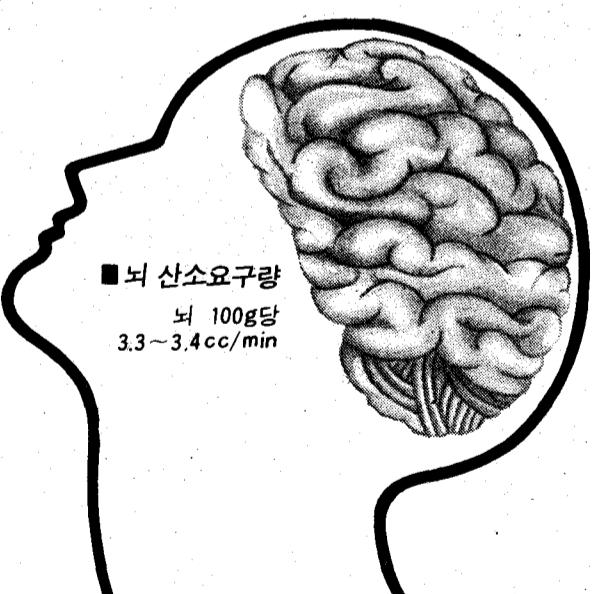
아주면 아무런 후유증없이 나이가 되는데 이를 가역성뇌출혈(可逆性腦虛血神經缺損症)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크든 작은 후유증이 반드시 남게된다. 뇌출증의 치료는 원인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급성기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므로 호흡, 순환부전의 시정과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애쓰며 중요한 신체기관에 더이상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혼수상태에 빠진환자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자세한 검사나 진단보다도 치료가 앞서서 비가역성혼수나 뇌사(腦死)에 빠지지 않도록

키기 쉬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증, 당뇨병, 심장병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일상생활에서 식사, 운동, 담배, 음주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처럼 뇌출증 발생의 위험인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끌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년기에 들어서 일과성뇌출혈발작이나 고혈압, 비만증등이 나타났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등 위험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강력하게 치료함은 물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혈소판응집제(抗血小板凝集劑) 등의 약물을 복용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방지에도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한번 뇌출증이 재발하면 다시 3번, 4번 재발되는 위험률이 높아지므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뇌출증의 외과적치료는 지주막하출혈에서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급속한 뇌압상승을 보이는 뇌내출혈이나 뇌출전 및 색전증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만성기의 기능예후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외과적 처치가 권장되는 수도 있는데 그 결정은 신경과 전문의와의 상의하에 이루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른을 공경하여 효도를 실천하자.

# 뇌출증 증증 만선불수

- 만성 두통
- 지각장애
- 현기증
- 노화증후군
- 연탄까스증후군
- (언어장애·수전증·기억력장애)



뇌에 맑은 산소를!

BELGIUM Nootropil 뇌기능 대사 촉진제

**뉴트로필®**

Rx Nootropil 2.4g/day p.o for 6 weeks

### 5大 藥理作用

#### 1.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  
(Rouzeau B. et al. FRANCE)

#### 2.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  
(Herrschartz H. et al. GERMANY)

#### 3. 혈소판의 과잉 억제작용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 (Barnhart et al. U.S.A.)

#### 4.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Skondia V. et al. BELGIUM)

#### 5.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C. Giurgena and Col. BELGIUM)



■ 포장 ■ 주사 : 1g 12앰플·정제 : 800mg 100정  
캡슐 : 400mg 100캡슐/15,000원